



성극 "삼손" 관람 (12/2/16)



성탄축하의 밤 (12/24/16)



성탄 주일 찬양 예배 (12/25/16)



청소년부 겨울수련회 (12/28-31/16)



아동, 청소년부 교사 감사 & David Yi 전도사 환영회 (2/12/17)



송중남 담임목사님 외갑(1/15/17)



시무 권사 수련회 (1/20-21/17)



새가족 환영회(3/12/17)



청소년부 WIN미션 봉사 (3/11/17)

뉴스레터

제7권 1호 2017년 3월 12일

MONTHLY NEWSLETTER OF DELAWAR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세상은 온통 감동 할 것 투성이입니다”



송중남 목사

제 집사람은 작년에 겨울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한일이 뉴욕에 있는 딸아이와 자기 차를 잠시동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뉴욕은 여기보다 눈이 많이 오고, 아이 차는 작은 차라서 눈길에 미끄러지기 쉽다는 에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겨울은 눈도 거의 안 오고 비교적 따뜻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교회에 눈이 오면 책임지고 치워야하는 부서를 맡은 장로님도 ‘따뜻한 겨울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노란 산수유 꽃은 벌써 피었다가 다 졌습니다. 추운 겨울이던, 따뜻한 겨울이던,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계절은 변함없이 오고 갑니다. 이렇게 어김없이 찾아오고, 머물고, 떠나는 자연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감동합니다.

그때그때 자연을 통해 느끼는 감동도 크지만, 사람을 통해 느끼는 감동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몇 일 전에 Panera Bread에 누구를 만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점심시간이어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주문한 음식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별 생각 없이 주변을 훑 둘러보는데 제 눈이 멈추는 테이블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분 둘이서 성경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은 복잡하고 시끄럽기까지 한 곳이었지만, 머리를 맞대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면서, 노트에 열심히 적어가면서, 성경에 밑줄을 그으며 성경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광경은 아마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교회 근처에 있는 'The Well'이라는 카페에 새벽기도 후에 가끔 가는데, 그곳은 물론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지만, 이른 아침부터 모여서 성경공부를 하거나 기도모임을 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는 청소년들이 이른 아침부터 교복을 입은 채로 성경 공부하는 모습을 가끔 보는데, 그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담임목사 칼럼

어른들의 굵은 어깨와 하얀 백발도 제겐 큰 감동입니다. 사실 일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힘든 법인데, 사람들을 잘 리드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분들의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또 뒤에서 드러내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꼼꼼히 해 내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기에 참 좋습니다. 주일이면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설거지하는 남자들의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가득 찬 쓰레기통을 솔선해서 치우는 손길도 아름답고 감동입니다.

목회를 하다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적인 일들을 보게 됩니다. 별것 아닌 일 같지만 그냥 스쳐지나가지 않고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목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인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감동할 일들이 많은데, 우리보다 더 감동 잘하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의 양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에 산상수훈 중의 8복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기분이 좋아지듯이, 우리들의 자연스런 삶이 누군가에게 감동으로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삶인데 선하고 착한 행동이 아예 습관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전해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좀 더 따뜻해지며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또 어디에서 어떤 감동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사실 잘 보면 세상은 온통 다 감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감동을 나도 만들고, 또 그런 감동이 눈에 보인다면 우리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CONTENTS

담임목사 컬럼	1
교회중축이란, Our House Built	2
하나님이 자기 집을 지으시다	3
길 안내자	4
내 아이의 율타리/뿌리내리기	5
사순절의 기도/나의 기도	6
QT 나눔/책소개	7

"축복, 교회 증축, 감사"

교회 증축이란

김홍완 장로(건축위원장)

은혜의 강물 교회 증축...

집 안에서는 방벽에 못 하나 못 박는 무딘 손을 가진 주제에 교회 증축이라니 그것도 위원회에 위원장?... 심히 염려되는 바 아니겠는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말아서는 안 되는 그런일을 맡고서 이런 글까지 쓰고 있으니 감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야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 할 수 있겠다. 건축도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교회 건축은 더 더군다나 하나님 은혜없이 안 된다고들 한다. 이번 건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점을 벌써부터 감사하고 있다.

일년 반 전 교회 증축을 해야 한다는 결정아래 시작된 지금 아직 땅을 파려면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벌써 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는 나로 하여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첫번째로,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사람들, 유병국, 김윤섭, 김상환, 이상열, 김대룡, 박장호, 그리고 우리팀의 유일한 홍일점인 모니카 송, 다들 세상에서 내 놓으라하는 일들을 (핵발전소 프로젝트, 케미칼 공장 프로젝트, 듀폰 서바이버, IT 전문

가, 박사, 자수성가 사업...) 바탕으로 내 일처럼 건축의 일에 헌신 하는 이들이 없었던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보내주신 건축가, 토목공학사, 모두들 신실한 교인들을 보내주셔서 모든 일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 짓는 이 은혜로운 사역에 내가 한몫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 할수 밖에.

둘째로, 기도로 성원 해 주시는 교인들, 17년전 교회를 건축하고 또 이번에도 물심양면으로 써포트 해 주시는 원로, 은퇴 장로 권사님들, 그리고 새로 오신 성도님들,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 놀랍게도 95% 이상 찬성해주시고 기대 이상의 작성 현금 까지 해 주시면서 기도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모든 교인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셋째로, 건축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들, 건물을 지으려하는 자리 아래로 큰 암석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그 암석을 없애는 데 드는 비용이 근 15 만불을 예상), 전문가를 고용하여 암석의 위치와 사이즈를 확인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은혜로운 일을 경험했다. 암석이 있는 걸 아는 이상, 암석을 없게 해 달라고 기도는 못 하고 그저 조그마한 암석만 있게 해달라고.... 그 결과는 암석은 있으나

그 위치가 바로 우리가 지을 건물의 바닥에서 10 인치 밑에...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는 암석을 깨고 짓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든든한 건물을 짓게 된 것이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라.... 파킹장문제, 그리고 Storm Water Management 등 항상 우리의 뒷목을 잡고 있던 문제들이 하나 둘씩 계획대로 해결 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할 따름인 것이다. 이제 곧 뉴케슬 카운티의 건축 허가가 나고 시공업자를 선택 하면 이제 곧 땅을 파고 건물이 올라 갈 것이다. 이런 은혜의 축제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건물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 한 마음, 한 가닥, 한 교회.... 이번 건축이 이 모든 은혜의 도구로 쓰여지길 기도 한다. 이제 그 성전과 교실의 주인이 되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예배 볼 것을 기대하며 방 벽에 못 하나 못 박는 나에게 교회 건축의 은혜를 맛 보게 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려 한다.

Our House Built On The Rock

Andrew Lee 집사

When I think about our new Wesley expansion, I am reminded of Matthew 7:24 - 27 :

“Therefore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puts them into practice is like a wise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rock. The rain came down, the streams rose, and the winds blew and beat against that house; yet it did not fall, because it had its foundation on the rock. But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does not put them into practice is like a foolish man who built his house on sand. The rain came down, the

streams rose, and the winds blew and beat against that house, and it fell with a great crash. “ As part of the exploratory efforts in building the expansion, we were required to have a site survey completed on the grounds of the proposed building expansion. If it was discovered that there were rock formations where the foundation needed to be built, the cost to excavate and remove it would have been tremendous. Through hope and prayer, it was discovered that the there was no rock that needed to be excavated and we were able to dodge a great cost. In fact, it was discovered that the rock formations

that were discovered began at the depth where our new building foundation would begin. So the new Wesley building will literally have ... “Its foundation on the rock.” as it says in Matthew 7:25.

It has been amazing to see how our church has gotten behind the new Wesley building project. From the generous building pledges to the many hours spent in both prayer and planning for the new building. What an amazing testament to God’s grace in providing room for our growing ministry. I pray that we build on the foundation of our Lord Jesus Christ.

큐티 나눔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유혜란 집사(월요큐티반 리더)

내가 고등학교때 미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나의 크리스찬의 삶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써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구별되는 "체크 리스트"의 삶이라고 생각했었다. 교회 청년들 중에서 클럽을 가거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발견했을때 나는 적지않은 충격을 받았었다. "아니.. 교회에 다니며 어떻게 그런 "짓" 을 할수 있나.."하고 정죄했던 한때가 있었다.

점점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에 “연

륜” 이 생기니 크리스찬의 삶은 행위가 아니라 묵상으로 나의 생각이 점점 주님의 생각과 마음에 가까와지는 것이라 믿게되었다. 그래서 행위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 잡았고 묵상에만 더 초점을 맞추고 기울어져 갔다.

하지만 요즘 누가복음을 큐티하면서, 마음의 묵상 뿐만이 아니라 나의 행동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나의 크리스찬의 삶이 묵상으로만 끝날수 없음을 깨닫는다. 예수님께서서는 사역을 하시기전 꾸준히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는 항상 행함이 있으셨다. 제자들을 모으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사랑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사역의 행함이 있으셨다. 예수님께서 평생 기도에만 열중하시고 사역을 하지 않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거

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마음의 묵상과 몸의 행동이 함께 발란스를 이루어야 할 때인것 같다. 예수님께서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랑은 그냥 감정만일 수는 없을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그 마음과 사랑의 수고함이 함께 결합이 되어 비로소 완벽한 사랑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라 여겨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음과 말로만 사랑하지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께서 보여 주신 그사랑을 실천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다. 예수님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셨기에... 나도 그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려본다.

추천 도서

“부족함”

저자: 최병락



이 책은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말하는 책이다. 부족함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두 다 풍성하고 넘치는 것을 원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인간은 날마다 어떤 면에서건 부족함을 마주한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를 채근하고, 때로는 남과 비교하기도하며, 어떻게든 그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씨름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저자 최병락 목사는 이미 가지고 있는 98%를 누릴 수 있다면, 가지고 있지 않은 2% 때문에 단 한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고되게 질주하며 살진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2%의 부족함, 목마름으로 인한 갈증 속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이 책은 그 2%의 목마름 때문에 그것만 채우려고 질주하는 사람들에

게 오히려 부족함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한다. 저자, 최병락 목사는 목회의 현장에서 또는 삶속에서 자신이 직접 겪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족의 은혜를 나눈다. 조금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체험하는 주님의 은혜, 삶의 묘미, 그것을 이야기한다. 이 책은 따뜻한 이야기이다. 용기를 주는 책이다. 부족함을 꼭꼭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가지고 길거리로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하는 책이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속울음을 이끌어서 주님 앞에서 감사하게 하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서 부족함이 불평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 은혜를 담는 그릇임을 발견하길 바란다.

도서부

'사순절의 기도'

이세영 집사(드보라 여선교회회장)

지난 3월 1일 Ash Wednesday... 사순절의 첫날이 40일간의 특별 새벽기도와 90일간의 성경통독으로 시작되었다. 목사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팔복’으로 말씀의 여정을 열어주셨다.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 마음으로 새벽을 행진하는 중이다. 하지만 나는 부끄럽게도 날마다 기도가 뜨겁고도 간절하게 눈 감자마자 터져나오지는 못한다. 종종 기도가 무작정 안되고, 자꾸 사람들과 세상일들이 보이며 마음 어딘가가 불편해지고 심지어 하품과 눈물

이 연이어 나오면서 두서 없고 지치게 하기 일쑤다. 그럴때마다 마음을 가다듬으며, 마치 입에 녹음 재생장치가 되어 있는 것처럼 ”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은 물러가라! “ 해가며 틈타는 내 마음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외치고 또 부르짖어가며 기도하기 위해 안간 힘을 써서 버티고 있기도 하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집중하여 기도를 마치는 끝자락에 이르면 ...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내 교회를 허락받음이 더없이 감사하다. 또 이 성전에 담겨 온갖 은혜를 누리고 있음이 비단 나 뿐이 아님을 늘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많은 기도로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중축을 앞둔 우리 교회가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완성함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복음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훗날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될 델라웨어의 한 성지가 되는 큰 꿈을 소망하기도 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안하나 물으셨던 물음에 나는 “네, 주님...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허락받은 은혜와 축복이 큼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 할 수 있을것 같다. 사순절 고난으로 시작하여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하고 거룩한 시간... 첫날 첫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구절에 내 기도의 시작과 바라는 결실이 다 들어 있는 듯하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수 없다.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것이다.

“Prayer does not change God, but it change us who pray.

- 키에르케고르 -

나의 기쁨, 나의 행복.

David Yi 전도사

Hello DKUMC!

Allow us to introduce ourselves. Me and Anne are both 2nd generation Korean-Americans. I grew up in the Philadelphia area and she grew up in Northern Virginia. We are both “PK’s” or Pastor’s Kids, and spent many days in the church much like your children do! We spent most of our twenties with a heart for Asia living in Seoul for several years. We never met there though. A few years back, I met a mutual friend of Anne’s and we met for a blind date. After convincing Anne that I was sent from God we got married last August. We thought that we would be missionaries in Taiwan for 3-5 years, but God had other plans. Our ministry situation was rapidly changing and we were not sure what the next few months held

for us. We were anxious about our future but trusted in God. It is truly a miracle that we are here with you today – God really sent us! My cousin John who is a deacon here, contacted me and asked me what my future plans were. This came as a huge shock to me because I didn’t let any of my missions supporters know what was going on or that something outside of Taiwan was even a possibility. I believe his words were, “Hey, I don’t know how long you are planning to be in Taiwan but we have an opening here at our church for a youth pastor. They are looking for a young couple that is married and loves Jesus. I thought you would be the perfect fit.” The idea of having to move internationally back to America didn’t sound fun but we decided to take a month to carefully pray with our friends Drew and Sarah who we were serving together with. God gave us all peace and we moved

back to America in December, and moved into our apartment in January to be with you all!

My goals for the Children’s and Youth Ministry are: 1) update the Bible studies, 2) create strong structure, 3) teach your children how to follow Jesus 24/7, and 4) encourage Sabbath keeping.

Thank you all for being so welcoming and embracing me and my wife Anne here. We are so blessed by your love and warmth.

Yours in Christ,
Pastor David & Anne



하나님이 자기 집을 지으시다.

안세현 장로

지금 사용하는 우리 교회 건물을 건축 할때에 건축위원장을 했던, 나에게 글을 써 달라는 연락을 받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던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눅 9:10-17)이 생각났다. “아! 그렇구나. 딱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우리 교인들의 몫이었고 그 위에 축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영감을 받고 잡자리에 서 일어났다. QT를 하려고 생명의 삶 말씀(2월1일본 9:10-27)을 보니 오늘 말씀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이었다. “할렐루야!”

1. 우리 교인들의 열정

1979년 7월22일(창립 첫 예배) 몇주 전 그 당시 감리사였던 William Hemphill목사님이 전화를 하여 “어디다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물었다. Wilmington보다는 Suburban이 좋겠다고 했다. 돌아해보면 만일 우리가 몇 명 안 되는 시내 백인교회에서 시작했으면 그 교회건물을 물려받아 안일하게 지금까지 왔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Newark UMC는 우리 교인들에게 더부살이하는 슬픔과 불편함을 빼저리게 느끼게 하였다. 창립1주년 특별예배 후 나는 감리사에게 “10년 이내에 우리 자체 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돌아해보면 내 욕심이었다. 10년이 아니라 20년이 걸렸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교인들의 불편함의 정도를 표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그 당시 공식적으로 건축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가장 먼저 이기풍박사님의 건축헌금이 있었고 Newark Community Day에서 한국음식을 팔아 건축헌금으로 저축하였다. Pike Creek에 위치한 Ebenezer UMC의 구 건물은 100명이 겨우 들어가는 비좁고 낙후된 건물이었으나 우리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었다. 교인들이 손을 모아 지하실에 교실을 만들었다. 10년간 우리 교인들의 예배장소였다. 본당에는 Air condition이 없어서 한 여름에는 참을

수 없이 더웠다. 그 당시 우리교회에서 하루 집회를 하였던 김동길교수님은 “가장 선진국인 미국에서 가장 원시적인 환경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라고 했다. 그동안 저축한 기금으로 목사관을 샀다 곧 다시 팔고 Old Capitol Trail에 Farm House가 있는 2.0 Acre 땅을 샀으나 교회가 부흥이 안되어 건축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1993년 와싱턴 한인교회 부목사로 계시던 신영각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다. 젊고 능력이 있어서 교인들이 좋아했다. 동네 편 교회에서 우리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많았다. 10가구 정도였다. 건축의 열기가 시작했으나 신목사님은 “보이지 않는 교회”부터 지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처음 몇 년은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다지셨다. 드디어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미래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미래위원회는 앞으로 10-20년을 바라보며 필요한 Date를 건축위원회가 필요할 때마다 제공하였다. 건축준비위원회는 건물 규모, 기금조성 교회위치와 부지확보에 연구초점을 맞추었다.

2.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선 하나님은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50만불의 건축기금을 약속하게 하셨다. 모든 교인이 참여하였고 심지어는 어린이들까지 헌금했다. 유학생들도 동참하여 음악회를 열어 기금을 모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임종식씨의 부인 임민옥씨의 Concert였다. 외국인까지도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부지를 찾기 힘들었다. 우리 동네를 벗어나면 Maryland나 Pennsylvania에는 땅이 있으나 그 곳에 지으면 Delaware교회가 아니니 그럴 수도 없었다. 그러던 하루 Realtor가 현재 우리 교회 앞의 양로원 자리에 있던 옛 동물병원을 판다고 하여 가봤다. 땅이 작고 길고 비싸서 안산다고 했다. 그런데 뒷 언덕을 보니 나무로 가득 찬 야산이 보였다. 한번 알아보라고 했다. 그날 저녁 Realtor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3.3 Acre 땅인데 \$160,000에 팔겠다.” 는 것이다. Old Capitol Trail부지를 \$40,000 손해 보면서 팔았는데 그 값이 \$160,000이었다. 새로 살려는 땅 값이 팔은 땅 값과 일치했으니 속 쓰렸던 것이 이제는 위로가 되었다.

하나님은 일전도 틀리지 않게 교회 부지를 맞추어 주셨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추어 두셨던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의 기도하는 손에 들려주셨다. 할렐루야! 땅이 생기게 되니 모든 일이 급진전하게 되었다.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Civil Engineer와 건물설계사가 선정이 되니 10,000 Square Feet 짜리 건물이 설계가 되었다. 부지 값과 건축비 합하여 \$140,000로 결정되었다. 12제자를 상징하는 12개의 서까래로 천정을 지탱하는 원형이며 120명이 서로 보며 앉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의 보금자리, 아름다운 우리성전! 건물 짓는데 1년이 걸렸다. 수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 주셨다. “교인 여러분, 큰 바위가 나오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Fire Hydrant가 Private이 아니고 Public으로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드렸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해 주셨다. 아! 이분이 자기 집을 짓고 계시는구나!

우리들은 새벽기도회를 교회 건축장에 와서 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로다” 돈이 부족했다. 건축 중에 다시 한번 모금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Maryland Northeast UMC에 가서 요청하니 \$100,000을 쾌히 빌려줬다. 부엌에 필요한 기구들을 사들이고, 교회에 필요한 가구들을 사거나 헌물로 받았다. 한나회에서 십자가를 봉헌하고 어린이들은 Comer Stone을 봉헌했다. 워싱턴교회는 성전 장의자와 기구를 선물했다. Grand Piano를 봉헌한 분들도 있었다. 1998년 8월 23일 건물이 완공이 되어 Newcastle County에서 가장 높은 곳에 소수 민족인 한인 이민교회가 우뚝 서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입당 축하예배시 저희들의 기도였다.

올해 우리교회가 다시 중축의 사명을 받았다. 믿음의 후배들이 건축 중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그대로 받기를 기원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길 안내자

김윤섭 권사

지난달 주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교회에서 다음세대를 위하여 교회증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이번 성지순례는 제게 여러가지로 의미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동서남북에 있는 성경의 지역들을 9박 10일 동안 다 돌아보는 짝짝한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로 시작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법례를 하나님께로 받고나서, 오랜시간의 광야 생활을 거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음세대에 전하며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간 흔적을 보고, 만지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가족들이 거주하였던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의 땅을 밟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생각해볼게 되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후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고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던 곳,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낳게된 사무엘이 생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였던 그 실로에서는 성지순례팀들이 다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참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윗이 법례를 옮기면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먼저 배우게 된것은 “예루살렘” 이름이 의미하는 뜻에 관하였습니다. 유대교 최대 지도자, “요나 메츠너” 대랍비는 해석하기를 “예루”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있고, “살렘”의 어원은 “살롬” 즉 평화란 뜻이 있기에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과 사람과 사람사이



에 평화를 도모한다는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예루살렘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성전건축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건축을 잘 마칠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며 삶을 마쳤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뜻을 이어서 성전건축을 마친 솔로몬... 그렇지만 이후 솔로몬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멀리한 많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길고 어두운 역사를 지나게 되고,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성전 재건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베들레헬, 제자들을 부르고 사역하셨던 갈릴리, 기도하셨던 감람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길, 부활하셨던 예루살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던 제자들을 만나주신 그 땅,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셨던 옴바, 바울이 로마로 출발했던 가이사라에서 지중해를 바라보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를 마치고 델라웨어로 돌아와서 새삼 깨닫는것은, 주님의 크신 사랑과 특별한 계획가운데 델라웨어 한인연합감리교회를 1979년 델라웨어주의 첫 한인교회로 세워주시고, 귀한 7분의 목회자들을 보내주시고, 성숙되고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갈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신실하신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 길을 잘 갈수 있도록 “길 안내자”의 역할을 하였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기에, 오늘의 델라웨어 한인연합

감리교회인 저희들이 있을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주신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의 일원으로 섬기면서 주님께 감사하는것은 1998년 8월 23일 성전건축을 마치고 첫예배를 이곳에서 드릴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지난 건축위원회를 인도하셨던 이승섭장로님의 섬김을 통하여 전교인들이 주님의 사랑안에서 함께 기도와 물질의 헌신과 수고로 교회 증축을 준비해 주셨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 증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앞서 나누었던것처럼,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아주 오랜 세월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순례자들을 인도하여 이 길을 갈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들의 희생과 순종을 통하여 이 생명의 말씀과 복음이 저희들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순례자의 삶을 살어나갈때 저희 서로 서로의 역할은 그분이 가신길을 따라가는것 뿐만 아니라 그분의 길을 안내하는 “길 안내자”의 큰 책임이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되새겨봅니다. 저희들 모두 주님안에서 하나되어 이제 믿음의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길 안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델라웨어의 예루살렘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길을 함께 가시는 사랑하는 델라웨어 한인연합감리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있기에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내 아이의 울타리가 되어줄 교회증축을 기다리며

송혜윤 집사

가을이 얼마입니다.

제가 델라웨어 한인 연합 감리교회에 몸을 담은게 벌써 12년이 지나가는 듯 합니다. 아이가 있는 어느 부모님들이 그러하듯이 저 역시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길 위해 델라웨어에서 켈로 펜잘다는 교회로 왔습니다.

그렇게 나의 아이는 이 교회에서 11번의 여름 성경학교를 경험하고 이 아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삶에 한치의 의심도 없는 자신을 크리스찬이라 말하는 건강한 주님의 청소년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교실들 갯수가 작은 관계로 어른들의 모임이 많은 주일에는 우리 아이들이 앉아서 부모님들을 기다릴수 있는 공간이 밀리고 밀려 우리 아이들은 놀이터로, 파킹장으로, 웨슬리

채플옆 쪽 파인 그곳을 아지터로 삼고 밖으로 밖으로 밀려 나왔는데 이제 참 반가운 증축소식이 확정되어 참 기쁜 엄마입니다. 엄마이면서도 모임이 있어 교실 하나를 차지할때에 그 교실에서 놀며 자신들의 부모님이 모임이나 봉사에서 끝나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다른교실에서 놀아”라는 말... 다들 여러번의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 어느날엔 파킹장에서 위험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아이가 파킹장을 막 뛰어 다니러라구~” 하며 아이를 안고 오시는 권사님들도 계셨고 젊은 엄마들 아이관리 못한다는 소리도 들어가면서 마쳐야 하는 부엌일, 성경공부, 성가대 연습...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성경공부 할때는 건드려 지지 않던 교실들은 어른들이 점령을 해버렸고 삼삼오오 앉아 그림을 그릴수 있었던 아이들은 교실에서 복도로 복도에서 밖으로 그 모습을 봐야하는 부모님들은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증축이 끝나면 아주 편안히 부모님들을 기다릴수 있고 부모님들도 아이 걱정은 조금 덜어낸 마음으로 때로는 마르다가 되고 때로는 마리아

가 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 질수 있을거란 기대에 부풀어 봅니다. 특별히 틈에이저 일때주님을 경험한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 살던 삶이 있었기에 더 그렇습니다. 내 아이가 어느 작은 모임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노라 간증했다는 말을 듣고 더 그렇습니다. 이 아이 언젠가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 날텐데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날때 내가 그러하였듯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어쩌나... 그러나 내가 그러하였듯이 결국엔 그 어느곳에 있던지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 나지 못하였노라 돌아올수 있는 청년이 되길... 우리 교회의 증축이 하나님의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 나의 아이가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더 탄탄히 배워가고 경험해 나가기를 소망 합니다. 아이들의 눈 높이에 맞는 교실들이 많아져서 이 아이들에게서 주님의부활이 선포되고 주님의 성령이 친히 이 아이들 영혼 영혼에 임하사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델라웨어 뿌리내리기

최병우 성도

미국에 처음 발을 딛고 나서 한번도 정착이란 단어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계속 해왔었는데 이렇게 델라웨어 정착기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니 그동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지나 갑니다. 항상 나그네 같던 저희 가정에게 이제는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상황이 허락되어졌다는 것에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년 전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대하며 무작정 결혼 후 그 다음날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왔던 상황을 다시금 떠올려봅니다. 롤러코스터와도 같았던 시간을 보내던 때였지만 항상 좋은 교회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상황과 사람을 통해 저희 가정에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해리스버그로 그리고는 다시 클리블랜드로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게 저희를 이끄셨습니다.

모든 수련의 과정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이곳 북부 델라웨어에 직장을 구해 정착하게 될 것이란 사실을 한국을 떠날 때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임을 고백합니다.

클리블랜드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곳에 지금까지 잘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델라웨어 한인 감리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아무연고도 없는 이곳에 왔지만 첫 만남부터 마치 오랫동안 함께 했던 것처럼 살갑게 대해주시니 저희 가정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느낌입니다. 이곳에 이사를 오자마자 제 두 아이들이 큰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많은 성도님들께서 자기 일처럼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은 저희에게 잊을 수 없는 가장 따뜻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멀리 필라델피아에 있는 병원에까지 방문해 기도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집에 남아있는 아이들까지 걱정해서 찾아와 도움 주셨던 덕분에 제 두 아이는 수술 후에 아무 탈 없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막내 믿음이 첫번째 생일도 가족같이 함께 축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큰 사랑 많이 받고 항상 빛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처음 미국에 오기로 결정 했을 때 이루고자 했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꿈꿔왔던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그 기억이 조금씩 희미해져 가던 때에 이 글을 쓰면서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알리는 일에 헌신하겠다

고 했었던 오래 전 그날 다짐들이 기억의 상자 속 구석에서 먼지가 잔뜩 쌓인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었던 지난 수년의 기간 중에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을 잊어버렸었고, 기도와 말씀과 멀어지면서 그분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의 은혜는 항상 변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가정을 여기까지 이끄시고 델라웨어 한인 감리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도 다 그분의 계획안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저희 세 아이들이 어려서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아이들이 교회 공동체안에서 사랑 속에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교회를 돌보며 그동안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일들이 곧 있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송종남 목사님 내외분을 포함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 알게 모르게 기도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델라웨어 정착을 도와주신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